



寡見에 依하면 如斯한 形式의 石象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例를 보지 못했기 故에 簡單히 紹介하고 자 한다.

花崗岩으로 彫刻된 귀염성스러운 어린 코끼리 같이 보이는 이 石象은 짧고 硬直한 四肢에 充實한 體軀가 올라앉았고 머리로 因하여 조그마한 눈이 더욱 가늘어진 것 같은 氣分이 나타나고 있다. 잔등이 위에는 矩形의 깊숙한 홈이 彫刻되어 있다.

여져 있고 머리 위에는 圓筒型의 조그만 臺座같은 것이 있다. 長은 六六cm 高는 五九·五cm인데 花崗石의 表面은 익숙한 솜씨로 自由롭게 다듬어지고 있으며 特別히 머리 위로 잡아올린 코는 더욱 精巧하게 彫刻되어 매우 아름답다.

이 石像이 墳墓裝飾에 使用되는 따위의 彫刻이 아닌 것은 그 크기로 보나 또는 잔등이 위에 홈이 패여 있는 것을 보아도 分明하며 또 머리 위에 圓筒型臺座가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이 코끼리만을 表現하려는 獨立된 裝飾用 彫刻이 아니고 다른 目的으로 만들어진 것이 分明하다.

이 石像은 틀림없이 佛像의 臺座로서 彫刻된 것이 確實하다고 생각된다.

다.

象臺를 가지는 佛像으로는 普賢菩薩像과 또 하나는 五智如來의 所變인 五大虛空藏中의 一像으로 金剛虛空藏像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範圍로는 普賢菩薩像이 많아서 우리나라에도 近世의 木像이나 남아 있으며 外國에는 彫刻 또는 繪畫로 알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 石像의 年代는 確斷할 수는 없으나 普賢菩薩이 古來로부터 두터운 信仰을 받아온 事實로 미루어 보면 이 石像의 彫刻自體에서 오는 느낌과 아울러 아마 高麗時代로 推測해도 無妨한 것으로 생각된다.

慶州 昌林寺址附近 出土의 仰花

朴 日 薰

昌林寺址는 慶州 南山 西麓의 傾斜地帶에 遺存한 本寺址의 一部가 남아 있는 아래層 地帶에는 頭部를 缺失한 雙頭龜趺 一基가 있고 上壇에는 八部衆像을 彫刻한 莊重한 廢塔이 있고 礎石과 瓦當破片이 隣近에 散在하고 있다.

이 仰花는 寺址 北쪽에 隣接한 南潤寺址와의 中間 地點에서 發見되었다. 이 兩寺址 中間에 貯水池가 있어 北쪽 池畔기슭을 잇고 西쪽으로 흐르는 溪川은 暴雨가 있을 때마다 不安하여 隣近의 石材를 옮겨다가 補強하였는데 이 仰花도 그 中의 하나로서 數年前 洪水로 因하여 露出된 것을 附近의 耕作者가 搬出保管하였다



